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1995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로마서 12장 중 -

늦가을의 북한 땅은 아직 따뜻하고 촉촉하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매우 차가워져 얼얼할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뽀뽀하게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바로 앞에 있는 도로만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종종 이 긴 길을 이동하곤 했는데 안개가 너무 빠곡하게 둘러싸 한번에 조금씩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탄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그저 앞의 형상을 비춰 줄 수 있을 뿐 이 안개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밝아지는 아침 해만이 이 안개를 태워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제재조치로 인한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시행착오들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긴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불확정성의 뽀뽀한 안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안개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과하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우리는 그의 영원한 사랑과 임재의 끊임없는 확신 가운데 심을 연습니다.

특히 극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실한 기도와 동역은 잿빛의 흐릿한 길 속을 비춰주어 마치 우리가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부어주고 계시며 해가 결국 안개를 깰 것과 CFK의 사역이 우리 주의 은혜와 시간에 지속될 것을 신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역 업데이트

지금 이 글을 쓰는 때까지 북한의 국경은 거의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품들과 이동에 굳게 닫혀 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완화되어 몇 달 동안 중국의 국경에서 운송을 기다리고 있던 몇몇 유니세프와 WHO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들이 남포에서부터 북한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가 인도주의적 사역의 광범위한 재개가 이루어질 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경 재개의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사안으로 발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실제 상황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2021년은 북한 내 많은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한해였을 것입니다(2019년에도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주민들이 영양부족상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업데이트 이후 북한 장마철의 빠른 종료로 인한 몇주간 고온의 지속은 작물의 생장에 피해를 주었으며, 8월에 내린 폭우는 동부 해안가와 북서 지방에 큰 홍수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원격 위성 영상 정보와 감지 분석을 통해 10월 4일에 발표한 2021년 농작물 생산 현황에 따르면 "기근의 위기 상황이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의 낮은 재배량 및 북동 지역의 농작지/운송 기반 시설 홍수피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와 결합하여 악화된 상황은 이 국가의 식량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북한이 2021년 2-3달치의 식량(860,000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국경이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에 대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여러 뉴스매체들은 필수적인 약제 및 의료 물자들의 재고 부족 문제,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및 다른 내부 문제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CFK가 미국 재무부 및 상업 허가서 및 유엔 1718 대북 제재 위원회 예외 대상 허가를 갱신 승인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북한의 국경이 재개되는 대로 인도주의적 사역을 적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들을 완료하였습니다.

결핵 통제를 위해 힘들게 싸워 얻은 것들을 코로나19가 뒤집다

지난 10월, 200여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질병의 추세와 결핵 확산에 대한 조치 등의 데이터를 집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1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국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0 여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사망률이 증가 추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현재 매일 4,100 여명의 환자들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낮은 정치적 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적은 후원의 문제는 이 해묵은 질병과 힘들게 싸워 얻은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높은 결핵 부담" 및 "높은 다제내성(MDR-TB) 결핵의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30개 국 및 중 하나이며 결핵 발생률에 있어서는 5번째로 높은 나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2019년 "총 결핵 발생률 최적치"는 인구 10만명당 5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국경이 폐쇄된 이후 현재 제한적인 국경 재개의 신호들만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의 재고는 2020년 후반에 바닥날 것으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 해야 할 115,000-150,000 여명으로 예상되는 결핵 환자들에게 어떠한 약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상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염성을 띄며 (특히 그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질병의 상태는 치료하기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더 걱정되는 문제는 이 결핵 보고서가 지목한 결핵 부담 국가들 내 결핵 감염 곡선 및 수치들의 증가를 악화 시키는 다섯 가지 주요 위험 요소들이 알코올, 당뇨, HIV 감염, 흡연, 영양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2019년 발생한 60,000-80,000 건의 결핵 발생 케이스가 영양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북한내 남은 케이스들은 흡연 및 알코올로 기인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조치로 가해진 국경 폐쇄로 인해 축적된 심각한 경제적 영향들, 2020년과 2021의 적은 양의 식량 추수,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심각한 홍수 피해 등 일반 주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극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영양 상태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내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의 급격한 전염은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상황이 변화되고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사역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는 www.cfk.org/21prayerfas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역에는 언제나 '우리'와 '상대방'이라는 둘 이상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장을 채울 때는 북한 방문에서 만난 북한의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방문이 어려운 지금 북한의 동역자가 아니라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동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점에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이야기는 CFK와 함께 북한을 (누적했을 때) 총 89차례 방문하여 1,099일을 북한에서 보낸 세계 10개국의 219명 동역자들의 목소리들 중 일부입니다. 각 방문들은 동역자들에게 깊은 영향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원 결핵 요양소 앞에서 찍은 David Won Kim과 북한 당국자들의 모습.

데이비드 원 김, 기술 봉사자, 브리즈번 호주: 저는 물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북한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사역할 기회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한 지역 관료와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배수로에 파이프를 내려놓고 있을 때쯤 한 지역 관료가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김 동무, 이렇게 일하고 돌아가면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태양열 수도 시스템을 짓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여기 왔습니다. 모든 비용은 스스로 지불하고 온 것이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통 급여를 주던데, 당신도 일이 끝나면 분명 돈을 받을 거요. 김 동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려주면 안 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받는 게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직원들이 준비한 지역 음식들을 대접 받습니다. 우리는 환자들 얼굴에 띠어진 미소를 얻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다시 돌아와 당신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와줘서 고맙소. 듣기로는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이곳을 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왔군요. 나조차 이곳 요양소는 거리가 멀고 험해서 방문하기가 꺼려지는데 당신은 세 차례나 왔군요. 매우 감명 받았습시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청소년 자녀를 가르치는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으며 그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시런, 정비 및 수도 팀 봉사자, 앵커리지 알래스카:

제 마음 속에는 북한에서의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서 만난 여러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인내하는 그들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받아드린 그들을 영원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희생이 있었지만 CFK와 북한에서 동역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게 가장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사랑과 자비의 파도가 일으키는 물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CFK는 북한의 상처 입은 자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실재하는 선물인 사랑과 자비로 북한의 상처 입은 자들을 도우며 물결을 일으키는 CFK라는 배에 탑승한 것은 제게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4-26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찾았던 우물 앞의 여인처럼, CFK 사역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며 그들의 삶에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저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David Syren의 모습

앨리스 U. 이, HOPE 간염 프로젝트 참여 의사, 시드니 호주:

매 방문마다 제게 보내는 진심 어린 작별 인사는 언제나 제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매번 헤어질 때면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방문이 연기될 때면 약속한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들을 떠올립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환자들이 묻곤 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OPE 클리닉에서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Alice Lee 박사

이십여 년 동안 의사로 지내며 좋은 의사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북한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의사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먼 길을 자전거로 오가며 병원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들 간의 관계는 제가 지금껏 봐온 어떤 것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도우며 그들의 걱정을 대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면 어떠한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 떠났던 나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소속감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주변의 많은 이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부족하게나마 CFK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CFK, 그리고 극심하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동역해 주시며 신실한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3:21-26절의 말씀을 붙들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함께 신실한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제목들

- 간염, 결핵,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진정한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코로나19에 대한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북한에 시행되어 국경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북한 사회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의 공급과 소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26-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가르치셨 듯이 우리가 현재 북한에 가 있을 수 없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에 심은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고 하신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씨앗이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PO Box 936 • 129 Center Avenue • Black Mountain, NC 28711

phone: (828) 669-2355 • fax: (828) 669-2357

email: cfk@cfk.org • website: www.cfk.org

Like us on: Facebook (f ChristianFriendsofKorea) Instagram (i christian.friends.of.korea)

Christian Friends of Korea is a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5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humanitarian, educational, and religious programs. Contributions to CFK are tax-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ed by law.

CFK also accepts stock or in-kind donations. To make a donation, please visit: <https://donate.cfk.org/>

Please make all checks payable to "Christian Friends of Korea" or "CFK."

If you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work of CFK or requesting information or materials, please contact us via phone or email.